



영화 '지푸라기...' 출연 배우 배성우

원작보다 적극적인 인물로 표현  
돈 가방 앞에서 흔들리는  
평범한 가장 연기로 공감 얻어

“중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대본과 원작 소설보다는 더 적극적인 인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이유로 벼랑 끝에 놓인 인물들이 거액의 돈 가방을 두고 짐승처럼 변해간다. 이때 그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은 돈을 발견하기 전 평범하게 살던 인물이다.

영화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배우 배성우(48)가 연기한 중만이 그렇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야간 사우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다. 그는 사우나 로커에서 돈 가방을 발견한 후 흔들리게 된다.

5일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배성우는 “처음엔 별 매력은 없었지만 이야기 안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관객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스럽게 연기했죠. 별 사건은 없고 고난만 있는 인물이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감동받는데 (중만이)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니죠?”라고 확인해가면서 촬영했어요. 영화 완성본을 보고 나니까 ‘아예 그냥 확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더 차분하게 할 걸 그랬나’ 생각도 드네요.”

중만을 더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 의상에도 직접 신경 썼다. 적재적소에 애드리브도 활용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영화에 방해가 안 되고 이 인물이 더 잘 보일지 생각해봤죠. 더 사실적으로 보였으면 했어

# 거액의 돈가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뒤탈 생길 것 같아. 하하하”

요. 50대 설정이라 머리에 흰색 칠을 하기도 했어요. 사우나 사장에게 하는 ‘버릇이 없네’라는 대사는 애드리브였는데 다들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고편부터 공개가 돼서... (웃음)”

중만의 경우처럼 큰돈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할 것 인지를 묻자 “신고할 거다”라며 “이 영화를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뒤탈이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중만의 노모를 모시며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는 그의 아내 역은 배우 진경이 연기했다. 진경과 배성우는 과거 연극에서 두 차례 부부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부부로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래 친한 친구예요. 동갑이기도 하고요. 제가 더 어려 보이죠? (웃음) 진경이는 연극에서 만났을 때, 워낙 매력 있어서 앞으로 잘 되겠지 싶었어요. 진경이도 아마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걸요? (웃음)”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짐승들’은 최근 로테르담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는 낭보를 받아들기도 했다.

“처음에 로테르담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고 하길래 ‘그거 재미없다는 소리잖아’라고 했어요. (웃음) 일단 상 받았다고 하니 완성도가 산으로 가진 않았다는 이야기구나 싶죠.”

최근 라디오에서 이 영화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 동생인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겠다는 공약을 한 데 대해서는 “그쪽에서 원하면 괜찮다고 했다. 알아서 거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가족끼리 같이 (출연)하면,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성우는 올해는 이 영화 말고 ‘출장수사’ 등의 개봉을 기다린다. 강제규 감독의 ‘보스턴 1947’ 촬영도 마쳤을.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가 많아 걱정됩니다. ‘지푸라기’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네요. 사건 자체보다도 그들의 사연에 집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연합뉴스



## KBS '거리의 만찬' 시즌2 MC 김용민 발탁 논란

시청자 청원까지 등장

여성 MC 3명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KBS 2TV 시사교양 '거리의 만찬' <사진>이 새 시즌에서 젠더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민을 새 진행자로 발탁하자 반발이 일고 있다.

5일 KBS에 따르면 '거리의 만찬'은 시즌2에서 시사평론가 겸 방송인 김용민과 배우 신현준을 MC로 낙점했다.

'거리의 만찬'은 박미선, 양희은, 이지혜 세 여성 MC 진행을 바탕으로 사회 약자, 특히 여성의 시선으로 시사 이슈를 다루는 포맷으로 호평을 받았다.

KTX 해고 승무원들 이야기를 담아낸 파일럿으로 시청자 호응을 받아 정규 편성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YWCA연합회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중 성평등 부문상,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을 받았다.



거리의 만찬 그녀들은 용감했다

이처럼 여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던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시즌2에서 남성 진행자를 내세운 데 대해 시청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MC 교체 사실이 알려진 직후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게시판에는 '거리의 만찬 MC를 바꾸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3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연합뉴스

## '블랙독'·'검사내전' 나란히 4%대 시청률로 종영

'낭만닥터 김사부2' 20.8%

큰 반향은 없었지만 꾸준히 챙겨보는 고정 시청자층을 만들어낸 tvN '블랙독'과 JTBC '검사내전'이 4%대 시청률로 나란히 종영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께부터 각각 tvN, JTBC에서 방송한 '블랙독'과 '검사내전' 유료 플랫폼 기준 전국 시청률은 4.658%, 4.004%로 나타났다.

두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4%대에서 시청률을 유지하며 마니아를 거느릴 정도로 작품성을 자랑했다.

'블랙독'은 학교판 '미생'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리얼리티있게 묘사해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주연 배우 서현진은 이 드라마에서 로맨틱코미디 외 장르로도

팩트럼을 넓히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들었다.

진학부장으로 분한 라미란의 시원시원한 연기, 진파 고등학교에 가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생생한 조연 선생님 캐릭터들도 빛났다.

'검사내전'은 부패하거나 정의롭거나,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천편일률적인 검찰이 아닌 일상적인 검찰의 모습을 그려 차별성을 꾀했다.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검사들이 실력과 승진 스트레스,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그려내 '검사 오피스극'을 추구한 점이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직장 내 성차별, 도박, 학교 왕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사회 병폐를 짚어내며 편견을 윤택하게 비웃었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2'는 17.7%-20.8%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00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00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00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09:00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0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00	00 동행(재) 55 UHD 스테이지(재)	00 포레스트(재)		30 고행이 보인다
12:00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모 모모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철설계
13:00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00	00 KBS 뉴스 10 테레투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5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00 뉴스브리핑
15:00	1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16:00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17:00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리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에뮬로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00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재)
19:00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20:00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보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00	00 KBS 뉴스9			
22:0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지역MBC UHD공통기획 포구만리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23:00	35 UHD 스테이지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24:00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5 나이트라인

##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08:00 똥똥똥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트 펭TV
09:00 고고다이나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울리 앤 룬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놀라운 아시아, 미안미안 필리핀 -그럼엔 고래상어가 산다. 세부>
09:40 아용명령 귀여워2	16:10 예술이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겨울, 고립무원 4부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똥똥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스님의 겨울은 어떤가요?>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다큐 시선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나노 공룡탐험대(재)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10 팻하트	17:45 울리 앤 룬(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6일(음 1월 13일 己卯) ☎ 010-9790-8237

36년생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48년생 가벼운 현상에 불과하니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다. 60년생 집착을 떨쳐 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72년생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84년생 확실히 파악한다면 운운은 의외로 쉽다. 96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4

37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할 것이니라. 49년생 구도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작용하는 계제이니라. 61년생 고강도의 조지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73년생 알찬 결실을 잉태 하는 마당에 임하라. 85년생 낙낙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알차다. 97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72

38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62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일 중용해야 하는 단계이다. 74년생 계속 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86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9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1, 62

39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51년생 체계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부의 관견임을 알라. 63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75년생 정곡을 찔러서 말해 줘라. 87년생 준비한다면 능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79

40년생 형세의 복잡다단함을 먼저 헤아려 볼 일이다. 52년생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관행 속에 위험 인자가 숨어 있다. 64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76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갈들 수밖에 없다. 88년생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영향력이 행사 되고 있다. 00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3, 51

41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53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65년생 사서라도 고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 있다. 77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9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01년생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91

42년생 장소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54년생 한 번 뺏은 말은 주위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 하자. 66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78년생 벌어진 틈을 매우지 않으면 이탈 될 수밖에 없다. 90년생 현재 상태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02년생 명분엔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5, 60

31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니라. 43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55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7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79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1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61

32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44년생 절할 기회가 없어서 몹시 생소할 것이다. 56년생 가법계 넘겨도 아무 이상 없었다. 68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라. 80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92년생 기본적인 틈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7, 88

33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45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57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69년생 진중형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81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8, 59

34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다. 46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을 것이다. 58년생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70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82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94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치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5, 73

35년생 오랫동안 진행 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겠다. 47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59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71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83년생 흡수해 보이지만 근본 원년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95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곱셈이 좌우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0, 65